

(6.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폐회사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건설적인 의견을 공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 해주신 정상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동료 정상과 대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상 최초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한국과 아프리카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대주제인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비전과,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라는 협력의 세 가지 방향성은, 앞으로 한국과 아프리카가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있어 기본 원칙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는 한국과 아프리카가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갈 중점 분야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교역과 투자입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측 간 교역과 기업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양측 간 교역과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유무역의 열매로
오늘의 성장을 일군 한국의 FTA 경험을
아프리카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은 유무상 원조 사업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기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수출금융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인프라입니다.

한국은 카중굴라 대교(보츠와나, 잠비아)와 같이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기념비적 인프라 사업이
아프리카 전역에서 많이 발굴되고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그동안 여러 국가들과 맺은
EDCF 기본약정의 신규 체결과 증액 갱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디지털 전환과 교육입니다.

한국은 <테크 포 아프리카(Tech 4 Africa)> 이니셔티브를 통해,
아프리카 청년층의 디지털 혁신 역량을 배양하고, 과학 기술 인프라를
적극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학교 설립과 정부 초청 장학프로그램(GKS) 사
업도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글로벌 도전과제 대응입니다.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3년 12월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계기에 출범한 <손실과 피해 기금>에 7백만 불을 신규 공여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산림 보존, 해양 보존, 생물다양성 보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할 의지를 표명했고,

고급 농업기술 적용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공동대응 경험을 토대로 한국과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의 방역 협력을 확대하고,

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예방접종을 포함한 기본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번에 출범시키기로 한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한 우리의 긴밀한 협력 기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와 안보 분야입니다.

AU는 역내 평화안보 구축을 위해 <아프리카평화안보체계(APSA)>를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는 이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AU의 G20 가입과 한국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해 확보된 국제적 위상을 적극 활용하여,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는 데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

습니다.

특히,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함께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우리 정부의 정책에 지지를 보내주신
동료 정상과 대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논의 결과를 담아낸 ‘한-아프리카 공동선언문’은 앞으로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을 안내하는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선언문 이행을 위한 정상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과 아프리카가
더욱 가까운 동반자가 된 만큼, 힘을 모아 서로가 가진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함께 꽃피워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협력의 성과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분야별 고위급회의를 통해 더욱 발전되어 가까운 시일 내에 차기 정상회의가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일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비즈니스 서밋에서
교역과 투자, 산업과 경제성장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애쓴 각국의 관계자 여러분, 준비 초기 단계부터 협의에 적극 참여해 온 주한 아프리카 대사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박수를 보냅니다.

참석해 주신 동료 정상과 대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